까르마빠 "印 돌아가길 간절히 바라"

정부 관계자 언급, 도미니카 시민권 문제 걸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라마를 이어 티베트 불교의 지도자로 주목받고 있는 17대 까르마빠 오갠 틴레 도제(34)의 거취를 두고 오랜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까르마빠 자신은 인도로 귀국하길 바란다고 인도 정부 관계자가 언급했다.

12월 6일 '티베탄 저널' '더 힌두' 등의 현지 매체들은 인도정부 티베트 위원회의 전임고문 아미타브 마투르(Amitabh Mathur)의 인터뷰를 통해 까르마빠의 거취에 대한 문제를 보도했다.

까르마빠는 지난해 5월 전법을 위해 미국으로 출국한 이래 미국에 머물고 있다. 미국망명설이 한때 대두됐으나 지난 7월, 라디오 자유 아시아(Radio Free Asia)와의 인터뷰에서 "인도에서 열릴 티베트 불교지도자 회의에 참석을 위해 귀국할 것"이라고 직접 밝혔다. 특히 이 회의는 티베트 4대 종단의 수장들과 원로들이 모여 달라이라마의 후계자에 대해 언급할 것이라는 기대로 주목을 받았다.

그러나 11월 29일 개최될 예정이었던 회의가 닝마파 종단 종정 까톡 게쩨 린뽀체의 갑작스런 입적으로 무기한 연기, 까르마빠의 귀국도 무산됐다.

마투르 고문은 까르마빠의 귀국문제에 대해 "까르마빠는 인도로 돌아가길 간절히 원하며, 오는 1월 말 부다가야에서 열릴 법회를 주재하길 원한다"고 전했다. 또 "만약 법회기간 중에 귀국이 가능하고, 그 사이에 불교지도자 회의가 재개되면 회의에도 참석할 것"이라고 말했다.

난민증명서 포기 의사 걸려

인도당국과 대화 더 길어져

티베트 내 안 좋은 루머도

그의 부재 티베트에 악영향

이에 관해 인도 내무부 관계자는 까르마빠의 귀국문제 대해 "올해 초 까르마빠가 어떠한 언급도 없이 망명티베트인 신분을 포기하고, 도미니카 공화국의 시민권을 취득했다"며 이 결정에 대해 불만을 가지고 있음을 시사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까르마빠는 이미 여러 차례 인도귀국 비자를 요청했으며, 인도 정부가 발급한 난민증명서를 반납하겠다는 서신을 뉴욕의 인도 대사관에 발송했다. 까르마빠가 인도로 귀국하는 것은 환영하지만, 난민증명서를 포기하겠다는 것은 인도정부가 동의하지 않고 있다"며 현재 인도당국과 까르마빠 간의 교착상태가 그의 귀국을 늦추고 있다고 전했다.

이러한 문제에 대해 마투르 고문은 인도당국의 회신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 "까르마빠는 모종의 압력을 느끼고 있다. 까르마빠가 귀국하기 위해서는 달라이라마와의 확고한 연계를 재확인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다.

까르마빠의 귀국에 대한 혼란은 티베트 불교 공동체에도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다. 현지 매체들은 "까르마빠의 귀국이 늦어지면서 여러 루머들이 돌고 있다. 이번 불교지도자 회의가 무기한 연기된 것도 사실은 까르마빠가 불참을 선언했기 때문이라는 소문이 있다"고 전했다. 이에 대해 티베트 망명정부 관계자들은 까르마빠의 부재가 회의 연기에 직접적 연관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그를 포함하지 않고 회의 재개를 논의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마투르 고문은 "회의 연기가 까르마빠에게 원인이 있다는 말은 근거 없는 낭설"이라고 일축하며 "오히려 네팔과 스리랑카 불교계에 영향을 끼치기 시작한 중국정부와의 정치적 민감성이 더 큰 요인일 것"이라고 추측했다.

까르마빠의 귀국과 거취문제를 두고 티베트 불교계와 인도-중국 간의 정치적 민감성이 고조 되고 있는 가운데, 사태의 귀추가 주목된다.



미국에서 설법 중인 17대 까르마빠. 사진출처=까르마빠 공식홈페이지

中 종교 탄압, 티베트인 또 분신

20대 남성 생사 확인 불투명… 벌써 154번째

티베트인 20대 남성(22세 추정)이 중국 당국의 종교 탄압에 반발하며 분신을 시도했다고 중앙통신이 지난 12월 11일 보도했다. 2009년 이후 같은 이유로 일어난 154번째 분신 사건이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 쓰촨성 아바(阿壩) 티베트족·장(羌)족 자치주 아바현에서 지난 8일 '주쿼(珠闊)'라는 티베트족 남성이 분신했다. 최근 들어 강화된 중국의 박해에 대한 불만 표시였다고 알려진다.

현지 경찰은 즉각 분신 현장을 봉쇄하고 외부의 출입을 차단했다. 게다가 주변 현진향촌(縣鎭鄕村)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는 한편 티베트족 승려와 주민의 언론 접촉을 통제했다는 게 현지 티베트 사원 관계자의 설명이다.

최근 쓰촨성 아바 자치구에서는 티베트족의 항의 분신 사건이 연이어 발생했다. 주쿼는 올해 3번째 분신 시도자이자, 아바현에서 42번째다. 티베트인 전체에서는 2009년부터 현재까지 154명이 분신해 이 중 132명이 숨졌다. 해당 남성의 생사는 현재 미확인 상태다.

한편 해당 남성이 분신한 지난 10일은 티베트 불교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라마가 노벨평화상을 받은 지 29주년을 맞는 날이었다.

중국 당국은 최근 티베트족 거주지를 상대로 달라이라마 초상화 제거 작업을 펼치고 있다. 티베트족 집에 있는 불당에 달라이라마 사진을 치우는 대신에 마오쩌둥(毛澤東) 前주석과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의 초상화를 내걸라고 강요하며 '중국화'를 감행하고 있다.

박정현 객원기자

AI가 읽은 불상의 감정은?

日 마이크로소프트사 나라대학교 공동연구

사찰에서 예경의 대상으로 모시는 불상의 평균연령에 대한 흥미로운 연구결과가 나왔다. 12월 6일, 일본 '산케이 뉴스' '비글로브 뉴스' 등은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와 나라대학이 공동으로 연구한 결과를 보도했다.

일본 마이크로소프트사는 자사의 AI인 얼굴 인식 소프트웨어(Microsoft Cognitive Services)를 기반으로, 무작위로 선발한 불상의 화상데이터를 이용해 표정을 분석했다고 전했다. 이 연구는 인간의 얼굴에서 감정을 추정하는 기술을 불상에 응용하려는 나라대학의 연구팀과 함께 진행됐다.

연구팀은 무작위로 210구의 불상을 선정했다. 불상의 종류는 여래·보살·천신·조사상 등 다양한 범위로 지정했다. 불상의 표정은 기쁨·슬픔·중립·분노·경멸·혐오·공포·경악 등의 8종으로 분류, "불상의 종류에 따라 감정의 경향이 다양했다"고 전했다.

예를 들어 여래의 경우 무표정에 해당하는 '중립'의 수치가 가장 높았다. 연구팀은 "인간의 희로애락을 넘어선 표정으로 무표정을 택한 것"으로 분석했다.

보살은 '기쁨', 천신은 '분노'의 수치가 높았다. 특히 천신의 '분노'에서는 "너무나 사실적으로 조성되어 표정의 깊이가 인간의 범위를 넘어선 것이 많아 분석이 불가한 경우가 많았다"고 고충을 설명했다. 또 시대에 따라 불교가 처음 전래된 시기엔 '기쁨'이, 전쟁이 잦은 시기엔 '분노'가 높은 수치로 분석됐다.

연구를 총괄한 세키네 쥰이치 나라대 부학장은 "수치의 경향은 불상이 조성된 시대적 배경을 보여주는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했다.

연령에 있어서는 가장 최연소가 2.9세, 최고령이 83.5세였다. 최고령의 값은 조사상의 표정에서 분석된 것으로, 실제 조성된 본인의 나이인 90세에 가까운 수치로 확인됐다. 또한 모든 불상의 평균연령은 38세라는 추정결과가 나왔다.

연구팀은 "이 분석은 어디까지나 경향성을 알기위한 참고수치다. 조명이나 각도 등의 환경에 의해 값이 변동될 수 있다"며 어디까지나 참고자료로 이해할 것을 당부했다.

박영빈 객원기자



나라대학 연구팀이 AI 분석을 위해 불상 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출처=산케이뉴스



삼발라 마운틴 센터 전경. 사진출처=라이언스로어

美 대형 불교단체 스님들 '성추문'

경찰 수사 착수… 지도부 사임 이어져

미국 콜로라도주 라리머카운티 수사당국은 불교 단체 샴발라 마운틴 센터(Shambhala Mountain Center)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수장인 사경 미팜 린포체의 성폭행 사건이 단초가 돼 단체 전체의 비위 수사로 번졌다.

경찰 관계자는 "라리머카운티 조사당국이 샴발라 마운틴 센터의 범죄 정황을 파악했다. 수사관들은 현재 정보가 흘러나온 경로를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고 불교 매체 라이언스로어(Lion's Roar)가 12월 10일 보도했다.

라이언스로어는 미국 언론 보도를 인용, 콜로라도 경찰이 사경 미팜 린포체 등 스님들의 성폭행 혐의에 대한 수사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는 올해 발간된 '샴발라 커뮤니티의 성폭력 실태' 보고서에서 3건의 사항이 고발된 후 시작된 것이다. 이 보고서에는 사경 미팜의 성추행 및 성폭력 혐의에 대한 폭로가 상세히 기재돼 있다. 해당 보고서는 4명 이상의 샴발라 커뮤니티 회원이 증언한 내용을 골자로 한다.

앞서 지난 7월 사경 미팜은 자신에 대한 성폭행 혐의를 인정하고 행정 및 교육 일선에서 물러났다. 그가 술을 마신 상태에서 성적 만족을 충족시킬 여학생을 구하기 위해 수행원들을 이용했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부터다. 여성들은 이를 거절할 경우 불이익을 받을 것을 우려했다고 전해진다. 샴발라 불교 지역사회의 최대 수뇌부인 칼라파의 9명의 구성원도 이 같은 혐의에 따라 사임했다.

티베트 불교에 근원한 샴발라 불교 커뮤니티는 전 세계에 약 200개 명상센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가장 큰 서부 불교 커뮤니티 중 하나다.

박정현 객원기자

민속죽염
30년 전통
조상의 얼과 혼이 담긴 우리 민족의 대표죽염



생명 에너지를 굳건히 지키면 약이 입에 이르기 전에 병이 낫는다.

인체건강의 4대 요소는 "맑은 물, 맑은 공기, 맑은 음식, 질 좋은 소금" 인데 이 중 "질 좋은 소금" 자색죽염은 총 아홉 번의 가열 과정을 거쳐 독성의 완전 제거와 약성의 완전 합성이 이루어지며 마지막 아홉 번째는 극강한 열에 의한 용융과정을 거쳐 탄생된 품질이 가장 우수한 죽염입니다. 이 죽염은 다음과 같은 기능이 있기에 일반인 및 환자들에게 꾸준한 섭취를 권장 할 수 있는 좋은 식품이라 할 수 있습니다.

① 강한 해독작용을 하며 간 기능을 좋게 한다.
② 소염작용을 하며 잇몸과 치아를 튼튼하게 해 준다.
③ 위장을 튼튼히 하며 식욕을 촉진시킨다.
④ 정혈작용 등 체질개선에 도움을 준다.

「죽염을 꾸준히 섭취하시면 인체의 자가 면역력이 높아져 감기 등 기타 질병 예방에 크게 도움이 됩니다」



9번 구운

가루자죽염	125g	40,000원
가루자죽염	230g	73,000원
알갱이자죽염	125g	43,000원
알갱이자죽염	230g	78,500원
휴대용알갱이자죽염	20g	7,500원

단체 선물용으로 적합합니다.

2번 구운 ·음식조리용·양치용·피부미용

보급형 민속죽염	500g	18,000원
	250g	9,000원

※자죽염 구매시 사은품 「*휴대용 알갱이 자죽염 10g」 증정.
구입가 5만원 미만은 배송비 3천원 적용됩니다.

회원 우대

주문 및 상담 010-2823-0483
입금 : 농협 150012-56-086122 예금주 : 김용희(민속죽염)
경북 영덕군 지품면 속곡동 54번지 www.msjy.co.kr

탱화 청동불상 전문
1,000불
3,000불
10,000불
상설전시관 100여평 개원





四代傳統
계룡산파 계보도
금호당 약효 → 보응당 문성 →
회응당 상균 → 원만당 석윤

해동불교미술원
010-6338-5167 / 010-3743-5167
서울특별시 중랑구 망우1동 183번지 해동빌딩